

'진화'한 김도영 "이번엔 다르다"



프리미어12 야구대표팀 김도영이 대만 타이베이 헨우야구장에서 열린 첫 훈련에서 송구하고 있다. 왼쪽은 류중일 감독. /연합뉴스

프리미어12 출격 앞둔 김도영... '독보적 존재' 위상 급등

작년 APBC에서 아쉬운 성적 남기고 손가락 부상 악재 모든 투수가 두려워할 선수...이제는 대표팀 간판 우뚝



“천재 김도영과 5명의 마우리 투수”(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홈페이지),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 투수를 두렵게 할 타자”(MLB닷컴), “장타에 스피드까지 갖춘, 수비하는 쪽을 압박하는 선수”(야후스포트즈 대만).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출격을 앞둔 김도영(KIA 타이거즈)을 둘러싼 평가들이다.

이런 평가에 김도영은 “작년과는 다른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결의를 다진다.

김도영은 지난 9일 대만 타이베이 헨우 구장에서 프리미어12 공식 훈련을 소화한 뒤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서 프리미어12가 이제까지 대회보다 크다는 느낌을 받는다.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정규시즌 타율 0.347, 38홈런, 40도루, 109타점, 143득점을 수확하고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린 김도영은 올해 한국 프로야구를 지배한 선수였다.

김도영이 성인 국가대표팀에 뽑힌 건 지난해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야구의 미래’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는 1년 사이 독보적인 존재로 위상이 바뀌었다.

대만 타이베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대만에 거주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대만인들까지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도영은 “다른 나라 팬들이 사인을 요청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기분은 좋다. 프리미어12가 작년 APBC보다 큰 대회라는 느낌을 받는다.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고 했다.

김도영에게 첫 성인 대표팀이었던 지난해 APBC는 아픈 기억이다.

타율 0.200(15타수 3안타)으로 부진했던 것도 있지만, 일본과 결승전에서 1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하다가 왼손 엄지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4개월간 재활했다.

소속팀 KIA의 이범호 감독은 현역 시절 김도영과 같은 3루수를 맡아 여러 번 인상적인 활약을

'프리미어12' 한국 경기 일정

일시	한국 vs	대진	장소
11월 13일(수) 19:30	한국 vs	대만 타이베이	타이베이
14일(목) 19:00	쿠바 vs	한국 티엔무	타이베이
15일(금) 19:00	한국 vs	일본 타이페이	타이베이
16일(토) 19:30	도미니카 vs	한국 티엔무	타이베이
18일(월) 13:00	호주 vs	한국 티엔무	타이베이

A조	조편성	B조
멕시코(2위)	일본(1위)	일본(1위)
미국(3위)	한국(4위)	한국(4위)
베네수엘라(6위)	대만(5위)	대만(5위)
네덜란드(7위)	쿠바(8위)	쿠바(8위)
파나마(10위)	도미니카공화국(9위)	도미니카공화국(9위)
푸에르토리코(12위)	호주(11위)	호주(11위)

() : 조편성 당시 WBSC 랭킹
자료: 한국야구위원회(KBO)

보여줬다.

김도영은 “감독님처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은 있다. 작년보다 더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작년 APBC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표팀이 프리미어12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를 헨우 구장에 대해서는 “타자가 유리한 야구장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구장은 작은 것 같은데, 막상 공이 잘 나가지 않더라. 오랜만에 야외 훈련을 해서 그런 것 같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김아림, 롯데 챔피언십 제패

와이어 투와이어...LPGA 한국 선수 시즌 세 번째 추배

김아림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A) 투어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김아림은 10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호아칼레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김아림은 2위 나탈리아 구세바(러시아)를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2020년 12월 메이저 대회인 US여자 오픈에서 우승한 김아림은 3년 11개월 만에 투어 2승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45만달러(약 6억2천만원)다.

US여자오픈 우승 당시에는 LPGA 회원이 아니었던 김아림은 LPGA 투어 회원이 된 이후로는 첫 승을 따냈다.

한국 선수가 올해 LPGA 투어에서 우승한 것은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양희영, 9월 FM 챔피언십 유혜란에 이어 이번 김아림이 세 번째다.

이번 우승으로 CME 글로벌 포인트를 5위에서 2위로 올려 상위 60명이



10일 열린 LPGA투어 2024 롯데 챔피언십 FR 우승자 김아림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흥기획 제공>

나가는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출전을 사실상 확정했다.

고진영이 12언더파 276타로 7위, 김효주는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해 공동 9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선수인 이소영은 5언더파 282타로 공동 28위, 황유민은 3언더파 285타로 공동 35위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근대5종 서창완, 1위로 태극마크

전남체고 김영하, 고등부 선수 유일 국가대표 영예

전남 근대5종 간판스타 서창완(국군체육부대)과 ‘포스트 서창완’ 김영하(전남체고 3년)가 2025 근대5종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다.

서창완과 김영하는 지난 8일 경북 문경에서 끝난 2024-2025 근대5종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각각 1위와 5위로 최종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국가대표 7명에 이름을 올린 서창완과 김영하는 포함된 태극마크를 달고 2025 월드컵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출전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국가대표로 선발돼 2023년 제3차 월드컵대회 혼성릴레이 1위 입상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서창완은 최종 종합점수 1천545점을 획득, 1위를 차지하며 9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김영하도 고등부 선수로 유일하게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한국 근대5종을 이끌어갈 차세대 기대주로 눈도장을 찍었다.

특히 강점인 레이저런에서는 경쟁



2025 근대5종 국가대표에 선발된 서창완(왼쪽)과 김영하 <대한근대5종연맹 제공>

한 선배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680점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무서운 신예의 모습을 과시했다.

서창완은 “파리올림픽 아쉬움을 극복하고 9년 연속 국가대표에 뽑혀 기분이 매우 좋다”며 “내년에는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희중 기자

제주戰 비겼지만, 전북이 대구 잡았다

광주FC, 잔류 확정

광주FC가 내년 시즌에도 K리그1 무대에서 뛴다.

광주는 10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득점없이 비겼다.

광주는 이날 무승부로 14승 4무 10패(승점 40)를 기록, 8위를 지켰다.

다만 같은 시간에 열린 전북과 대구와의 경기에서 전북이 3대1로 승리하며 10승11무 16패(승점 41)로 승강플레이오프 마지막전인 10위로 올라섰고, 대구가 9승 13무 15패(승점 40)로 11위로 추락하며, 광주는 남은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잔류를 확정지었다.

이날 자력 잔류를 위해 굳은 각오로 제주 원정에 나선 광주는 김경민의 선방으로 여러차례 위기를 벗어났다.

광주는 전반 최경록, 이희균 교체 카드와, 후반 오후성, 베카, 신창무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지며 제주의 골문을 노렸지만 기다리던 득점은 터지지 않았다.

잔류가 확정된 광주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전북과 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한편, 이날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1-2로 패한 인천은 8승 12무 17패(승점 30)로 12위가 확정돼 K리그2로 다이렉트 강등됐다.



10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와 제주의 경기. 광주FC 이민기가 드리블 돌파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인천의 강등은 2008년 창단 이후 처음이다. 승리한 대전은 11승 12무 14

순천시청 유도, 회장기대회 우승

올 시즌 3관왕 위업...순천미래과학고 박예지 '금'

순천시청 유도팀이 회장기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올 시즌 3관왕에 등극했다.

양서우, 박다솔, 신재원, 신지영이 팀을 이끈 순천시청은 지난 8일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2024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2025년 1차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동해시청을 3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3월 순천만국가정원컵전국유도대회, 8월 2024 kh그룹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 이은 올 시즌 세 번째 우승이다.

또한 순천시청 유도팀은 2022년 우승 이후 2년 만에 정상에 복귀하는 기쁨까지 누렸다.

개인전에 출전한 신재원과 신지영은 각각 -63kg급과 78kg급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확했다.

여고부에서는 박예지(순천미래과



2024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순천시청 유도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학교 1년)가 -52kg급 결승에서 최예린(삼정고)을 상대로 절반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밖에 남고부 -81kg급 최지우(순천공고 3년), 남중부 -81kg급에서는 김준재(목포옥암중 3년), 남자일반부 -81kg급 이광희(전남유도회)도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며 전남유도를 빛냈다. /박희중 기자

윤이나, KLPGA 상금·대상·최저타수 석권

마다솜, 2주 연속 연장전 승리 시즌 3승...'공동 다승왕'

윤이나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4시즌 3관왕에 등극했다.

윤이나는 10일 열린 시즌 마지막 대회 SK텔레콤·SK실터스 챔피언십을 3라운드 최종 합계 2언더파 214타, 공동 12위로 마쳤다.

이번 대회 상금을 포함해 시즌 합계 12억1천141만5천75원을 벌어들인 윤이나는 상금왕을 차지했다.

여기에 그는 대상 포인트 535점, 평균 타수는 70.05타로 모두 전체 1위에 올랐다.

KLPGA 투어에선 지난해의 이예원에게 이어 2년 연속으로 한 명의 선수가 시즌 상금과 대상, 최저타수상을 모두 휩쓸었다.

시즌 마지막 대회 우승은 마다솜에게 돌아갔다.

최종 합계 7언더파 209타로 이동은과 동타를 이룬 마다솜은 2차 연장전

에서 승리하며 우승 상금 2억5천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마다솜은 9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과 지난주 S오일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세 번째이자 통산 4번째 우승을 일궜다.

특히 그는 S오일 챔피언십에서 김수지를 꺾은 데 이어 2주 연속 연장전 승리를 거두며 이예원, 박현경, 박지영, 배소현과 '공동 다승왕'에 올랐다. /연합뉴스